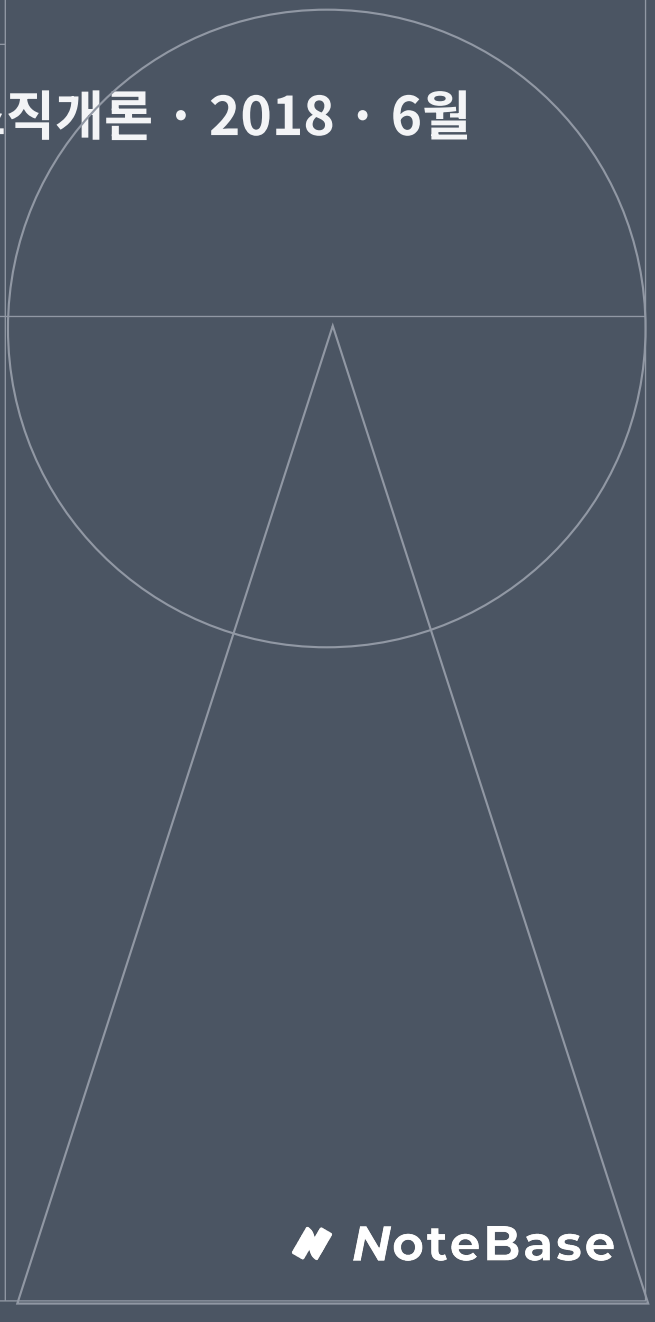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8 · 6월

문 1.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개념 분석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는 자료에 나타난 주제를 언어나 기호로 변환해야 한다. 이때 통제 어휘집을 사용하여 ㉠_____을/를 부여하거나, 서가상에서 상대적인 자료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_____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 키워드, ㉡: 저자표목

② ㉠: 분류기호, ㉡: 주제명표목

③ ㉠: 저자표목, ㉡: 키워드

④ ㉠: 주제명표목, ㉡: 분류기호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통제 어휘집에서 정해진 용어를 골라 주제를 표현하는 것은 **주제명표목**이고, 서가에서 주제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정하는 데 쓰는 것은 **분류기호**이다.

빈칸별 해설

㉠ 주제명표목: 자료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주제명표목표와 같은 통제 어휘집에서 선정하는 표준화된 용어이다.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해 검색 결과가 흩어지는 것을 줄이고, 동일한 주제의 자료를 함께 찾도록 한다. 따라서 '통제 어휘집을 사용'한다는 단서는 **통제된 주제 표현**인 주제명표목에 해당한다.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자료에서 추출하거나 자유롭게 선정한 검색어이며, 저자표목은 저자를 통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표목이므로 이 빈칸에 맞지 않는다.

㉡ 분류기호: 분류표에 따라 자료의 주제를 숫자나 문자 등의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를 주제별로 모아 서가에 배열하는 기준이 되므로 **서가상 상대적 위치**를 결정한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주제명표목이 주제를 언어로 표현하여 검색을 돕는다면, 분류기호는 분류체계 안에서 해당 주제의 위치를 기호로 표현한다.

㉠에 주제명표목, ㉡에 분류기호를 넣은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2. 청구 기호를 구성하는 저자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저자기호는 영미목록규칙(AACR2R)의 표목 선정기준을 차용하여 생성된다.

② 「LCC저자기호표」는 후조합식 기호표이며, 상대적 기호가 아닌 고정적 기호로 생성된다.

③ 대표적인 조합식 저자기호법에는 리재철의 「한글순도서 기호법」과 「LCC저자기호표」 등이 있다.

④ 장일세의 「동서저자기호표」,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등은 대표적인 열거식 저자기호법이며, 전조합식 기호표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고정적 기호'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LCC 저자기호는 문자별 기호를 조합하되, 기존 자료의 알파벳순 배열에 맞게 숫자를 조정하는 **상대적 기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자기호를 만들려면 먼저 기호를 부여할 대상이 되는 저자명이나 서명 등을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AACR2R의 **표목 선정기준**을 차용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선정된 표목에 저자기호표를 적용하여 기호를 만든다. AACR2R 자체가 저자기호의 숫자를 정하는 표라는 뜻은 아니다.

② X: LCC 저자기호표는 필요한 문자에 대응하는 숫자를 결합하는 후조합식 기호표이지만, 생성되는 기호는 **고정적 기호가 아니라 상대적 기호**이다. 먼저 같은 분류기호 아래에서 해당 자료가 들어갈 알파벳순 위치를 확인하고, 표에서 얻은 기호가 그 위치에 맞지 않으면 숫자를 추가하거나 조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이라도 기존 자료의 배열 상황에 따라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

③ O: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과 LCC 저자기호표는 이름 전체에 부여할 기호를 하나씩 미리 열거하는 대신, **이름의 구성 문자에 대응하는 기호를 조합**한다. 필요한 기호를 적용할 때 구성한다는 점에서 조합식, 곧 후조합식에 해당한다.

④ O: 장일세의 저자기호표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는 저자명이나 그 일부와 이에 대응하는 기호를 미리 배열해 두고 찾아 쓰는 **열거식·전조합식** 기호표이다. 적용할 때 문자별 기호를 새로 조합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다만 장일세의 표는 일반적으로 '동양서저자기호표'라는 명칭으로 소개된다.

NoteBase

문 3.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의 기술의 정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 유형별 기술정보원의 우선순위는 KCR4 기술총칙에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영인본이나 복제본은 원칙적으로 원자료가 아닌 복제본 자체에서 정보원을 선정한다.

③ 으뜸정보원 이외에서 얻은 정보는 각괄호에 묶어 기술해야 한다.

④ 기술사항별로 그 으뜸정보원을 잡아, 그에 준거하여 기술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료 유형별 기술정보원의 우선순위는 기술총칙에 한꺼번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자료 유형을 다루는 장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기술총칙은 여러 자료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술총칙은 자료 기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한다. 단행본·지도자료·녹음자료 등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매체 특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술정보원의 우선순위는 **각 자료 유형의 해당 장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술총칙에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

② O: 영인본이나 복제본을 기술할 때의 대상은 원자료가 아니라 **복제본 자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제본 자체에서 정보원을 선정한다. 원자료의 정보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재 기술하는 복제본의 서지적 특성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

③ O: 해당 기술사항에 지정된 으뜸정보원 이외에서 얻은 정보는 **각괄호([ ])로 묶어** 기술한다. 이는 그 정보가 지정된 으뜸정보원에서 직접 채택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자료의 안과 밖이 아니라, 해당 기술사항의 으뜸정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④ O: 으뜸정보원은 각 기술사항의 정보를 채택하도록 정한 우선적인 정보원이다. 표제와 책임표시사항·판사항·발행사항 등은 필요한 정보의 성격이 다르므로 **기술사항별로 정해진 으뜸정보원**에 준거하여 기술해야 한다. 하나의 정보원을 모든 기술사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NoteBase

문 4.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 : C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가능한 주제를 미리 전개해 놓은 열거식 분류이다.

② 랑가나단(Ranganathan)의 분류 3단계 이론과정에 근거한다.

③ 분석합성식(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분류체계이다.

④ 주제 간의 계층관계나 지식의 분화과정은 물론, 관련 주제 간의 결합력이 우수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콜론분류법은 가능한 주제를 모두 미리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제를 구성 요소로 나누고 필요한 요소를 결합하는 **분석합성식 분류**이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주제를 미리 전개해 놓은 열거식 분류'라는 설명은 그 특징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콜론분류법은 **분석합성식 분류**이다. 열거식 분류는 주제를 미리 전개한 분류표에서 해당 항목을 찾는 방식인 반면, 콜론분류법은 주제의 구성 요소와 결합 규칙을 바탕으로 필요한 분류기호를 만든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주제를 미리 전개해 놓은 열거식 분류'로 설명할 수 없다.

② O: 랑가나단은 분류 작업을 **착상·언어·기호의 3단계**로 구분했다. 착상 단계에서는 주제의 개념과 관계를 분석·조직하고, 언어 단계에서는 그 개념을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기호 단계에서는 이를 분류기호로 나타낸다. 콜론분류법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다.

③ O: 분석합성식은 주제를 여러 구성 요소로 **분석한 뒤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합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는 도서관이라는 기본주제와 인도라는 지역 요소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 요소를 나타내는 기호를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O: 주제를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세분하여 계층관계와 지식의 분화를 나타내면서, 패싯과 주제 간 관계를 표현하는 규칙을 통해 **관련 요소와 주제를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세분뿐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된 주제와 학문 간 관련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

NoteBase

문 5. <보기>의 분류대상을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을 적용하여 가장 옳게 분류한 것은? (단, <보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외에 별도의 예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보기>
<분류대상>
“Reviews of works for public library publications”
<DDC 제23판 일부 발췌>
027 General libraries and archives
027.1 Private and family libraries
027.2 Proprietary libraries
027.3 Rental libraries
027.4 Public libraries
028 Reading and use of other information media
028.1 Reviews
028.16 Reviews of works for specific kinds of users
Add to base number 028.16 the numbers following 011.6 in 011.62–011.67
011.6 General bibliographies and catalogs of works for young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specific types of libraries
011.62 Works for young people
011.63 Work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llnesses
011.67 Works for specific types of libraries
Including bibliographies and catalogs of books for public libraries

① 027.416
② 027.4167
③ 028.1667
④ 028.167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분류대상은 공공도서관 자체가 아니라 **특정 이용자를 위한 자료의 서평**이므로 기본기호는 028.16이다. 여기에 011.67에서 **011.6 다음의 숫자 7만** 붙이면 028.167이 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기본기호 028.16: 분류대상의 'Reviews'는 서평을 뜻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자체를 나타내는 027.4가 아니라 서평을 나타내는 028.1에서 출발한다. 이 서평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자료를 다루므로, 특정 이용자층을 위한 자료의 서평에 해당하는 **028.16을 기본기호**로 삼는다.

부가할 숫자 7: 028.16의 지시는 011.62–011.67 중 해당 기호에서 '011.6 다음에 오는 숫자'를 가져오라는 뜻이다. 공공도서관을 위한 도서의 서지와 목록을 포함하는 항목은 011.67이므로, 여기서 공통 부분인 011.6을 제외한 **7만 가져온다**. 67을 가져오는 것은 지시가 정한 절단 위치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기호의 합성: 기본기호 028.16 뒤에 가져온 숫자 7을 붙이면 028.167이 된다. 이는 수의 덧셈이 아니라 분류기호의 뒷자리를 이어 붙이는 것이며, ④의 028.167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이용한 전기(傳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문학, 철학, 음악가 등의 전기는 그 주제 아래 분류하는 것보다 전기류에 모아 분류하는 것이 더 좋다.

② 전기적 성격의 인명록은 표준구분 기호 -06을 부기하며, 전기적 성격의 일기는 문학류의 일기, 서간으로 분류한다.

③ 역사류 아래 전기에 모으지 않고 해당 주제에 -099를 붙여 분류하나, 도서관에 따라 별법으로 990 아래 분류할 수 있다.

④ 장서가 많은 대규모 전문도서관의 경우, 전기는 해당 주제 아래 분산되어 분류하는 것보다 역사류에 함께 분류하는 것이 좋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제에 -099를 붙여 분류**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990 아래에 모으는 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제별 분류는 인물의 전기를 그 분야의 다른 자료와 함께 이용하게 해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학·철학·음악 등 특정 분야 인물의 전기는 **해당 주제 아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음악가의 전기를 음악 관련 자료와 함께 두면, 이용자는 음악을 조사하면서 인물의 생애와 활동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전기류에 모으는 방법이 주제별 분류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니다.

② X: 전기적 성격의 인명록은 **전기자료로 취급**하며, 해당 주제 아래 분류할 때에는 전기 분류 원칙에 따라 -099를 적용한다. -06은 학회·단체·기관·회의에 쓰는 표준구분 기호이다. 또한 일기라는 형식만으로 문학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담은 전기적 성격의 일기는 전기자료로 취급하고, 문학적 성격의 일기·서간과 구별한다.

③ O: 전기는 원칙적으로 인물과 관련된 주제 아래에 표준구분 기호 -099를 붙여 분류한다. 다만 도서관의 장서 구성과 이용 목적에 따라 **별법으로 990 아래에 모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별 분류라는 원칙과 전기류에 모으는 별법을 함께 인정한 설명이다.

④ X: 장서가 많은 대규모 전문도서관에서는 전기를 **해당 주제 아래 분산하여 분류**하는 편이 좋다. 전문 분야를 조사하는 이용자가 그 분야의 일반 자료와 관련 인물의 전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류에 함께 모으는 것이 더 좋다는 설명은 이러한 주제 중심의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7.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에 따라 MARC 레코드로 작성된 <보기>의 문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100 1    ‡a Grisham,  John, ‡e author.
245 1 0  ‡a Camino Island / ‡c John Grisham.
264   1  ‡a New York : ‡b Doubleday, ‡c 2017.
336      ‡a text ‡b txt ‡2 rdacontent
337      ‡a computer ‡b c ‡2 rdamedia
338      ‡a online resource ‡b cr ‡2 rdacarrier
776 0 8  ‡i Print version: ‡z 9781473663732 ‡z 1473663733
```

① 336 필드는 내용유형으로, 이 문헌이 문자자료로 표현되었음을 나타내며, 리더/06(레코드 유형)과 함께 사용된다.

② 337 필드는 수록매체유형으로, 이 문헌이 컴퓨터매체에 수록되었음을 보여준다.

③ 338 필드는 매체유형으로, 이 문헌이 온라인정보원임을 보여준다.

④ 776 필드는 자료형태유형으로, 이 문헌이 인쇄본임을 보여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336 필드의 'text'와 'txt'는 내용이 **문자자료**임을 나타낸다. 336은 **내용유형**을 기술하며,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 종류를 나타내는 리더/06과 함께 사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336은 저작의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유형** 필드이다. 보기의 'text'는 내용유형 용어이고 'txt'는 그 부호이므로, 이 문헌의 내용이 문자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리더/06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 종류를 나타내는 데 비해, 336은 더 구체적인 내용유형을 기술하며 리더/06과 함께 사용된다.

② X: 337은 수록매체유형이 아니라 **매체유형** 필드이다. 매체유형은 자료의 내용을 보거나 재생하는 데 필요한 매개 장치의 일반적인 종류를 나타낸다. 보기의 'computer'와 부호 'c'는 이 문헌의 내용을 이용하는 데 컴퓨터가 필요함을 뜻한다. 수록매체유형을 기술하는 필드는 338이다.

③ X: 338은 매체유형이 아니라 **수록매체유형** 필드이다. 수록매체유형은 내용이 담긴 저장매체의 구체적인 형식을 나타낸다. 보기의 'online resource'와 부호 'cr'는 이 문헌이 온라인정보원임을 뜻한다. 따라서 온라인정보원이라는 해석은 맞지만, 338의 필드 명칭을 매체유형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④ X: 776은 기술대상 자료와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를 연결**하는 필드이다. 보기의 'Print version:'과 뒤의 ISBN은 현재 기술 중인 문헌과 관련된 인쇄본 정보를 나타낸다. 현재 문헌 자체가 인쇄본이라는 뜻은 아니다. 현재 문헌은 338의 'online resource'에서 확인되듯 온라인정보원이며, 776을 통해 별도의 인쇄본과 연결되어 있다.

NoteBase

문 8. 분류목록에 대비되는 주제명목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료의 주제를 일정 틀에 따라 표목으로 변환한다.

② 자모순 배열로 인해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기 어렵다.

③ 용어에 관계없이 개념의 계통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④ 동일주제라도 취급관점에 따라 다른 기호로 나타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제명목록은 자료의 주제를 **일정한 규칙에 따른 언어 표목**으로 표현하고, 그 주제명을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검색하게 한다. 주제를 분류기호로 표현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분류목록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주제명목록은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뒤 주제명표목표 등의 규칙에 따라 **통제된 주제명표목**을 부여한다. 표목은 자료를 찾아가는 검색의 기준이 되는 말이다. 같은 주제를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더라도 채택된 표목으로 모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② X: 자모순 배열에서는 새로운 주제명을 **해당 자모순 위치에 삽입하기 쉽다**. 새 주제가 생겨도 기존 주제 전체의 계층이나 분류기호 체계를 다시 짜지 않고 그 주제명의 배열 위치를 정할 수 있다.

③ X: 용어에 관계없이 개념의 계통을 따라 접근하는 것은 **분류목록**의 특징이다. 분류목록은 분류체계의 상위·하위 관계에 따라 관련 주제를 찾아가게 한다. 주제명목록은 주제명을 자모순으로 배열하므로, 직접 검색하려면 채택된 주제명을 알아야 하며 다른 표현은 참조를 통해 해당 표목으로 안내한다.

④ X: 동일한 주제도 취급하는 학문 분야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기호**로 나타내는 것은 분류목록의 특징이다. 주제명목록은 분류기호가 아니라 문자로 된 주제명을 표목으로 사용하여, 여러 분야에 흩어진 동일 주제의 자료를 해당 주제명 아래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NoteBase

문 9. 온라인열람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자와 주제명에 대한 상호참조가 용이하다.

② 접근점의 확장이나 다양한 탐색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기술대상 자료에 대해 복수의 저록을 작성한다.

④ 서지정보망의 주된 목록으로 사용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온라인열람목록은 한 자료의 **서지레코드 하나에 여러 접근점을 연결**하여 검색한다. 저자명·서명·주제명으로 찾게 하려고 접근점마다 별도의 저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자명의 다른 표기나 관련 주제명을 전거레코드로 연결하여, 이용자를 채택된 이름이나 관련 주제로 안내할 수 있다. 이처럼 **전거데이터를 활용한 상호참조**가 가능하므로 이름이나 주제의 표현이 달라도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② O: 서지레코드의 저자명·서명·주제명뿐 아니라 키워드 등도 검색에 활용할 수 있어 **접근점을 확장**하기 쉽다. 또한 시스템이 지원하는 범위에서 불리언 연산, 절단검색 등 다양한 탐색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X: 온라인열람목록은 한 자료의 **서지레코드 하나에 여러 접근점을 연결**하므로, 접근점마다 별도 저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같은 책을 저자명으로 검색하든 서명으로 검색하든 동일한 서지레코드를 찾을 수 있다. 저자·서명·주제별로 여러 목록카드를 작성하던 카드목록의 방식과 구별해야 한다.

④ O: 여러 도서관이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공유하는 서지정보망에서는 **온라인 방식의 목록**을 통해 각 도서관의 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열람목록은 서지정보망에서 이용자가 자료를 찾는 주된 목록으로 활용된다.

NoteBase

문 10.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된 책임표시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작곡자, 편집자, 애니메이터

② 애니메이터, 제작자, 번역자

③ 각색자, 역자, 애니메이터

④ 후원자로서의 단체, 각색자, 역자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KCR 제4판은 책임표시의 원칙적 범위에 **후원자로서의 단체·각색자·역자**를 포함한다. 다른 후보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애니메이터는 이 원칙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 해설

KCR 제4판에서 책임표시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문의 저작자나 원작자**이다. 여기에는 저작자나 편(찬)자, 작곡자, 화가, 제작자, 역자, 각색자가 포함된다. 또한 단체의 종합의지나 행정자료 등을 나타내는 자료에서는 해당 단체가 포함되며, 후원자로서의 단체도 포함된다.

'후원자로서의 단체, 각색자, 역자'는 세 역할 모두 이 범위에 속한다. 반면 다른 후보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애니메이터는 KCR 제4판의 원칙적 책임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역할이 포함 대상이더라도 애니메이터를 함께 제시한 묶음은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11. <보기>는 영상자료의 서지레코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코드끼리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245 ▼a(KBS 스페셜) 한국 교육, 세계 1위?
▼(㉠) [비디오 녹화자료]/▼dKBS미디어[편]
260 ▼a서울 : ▼bKBS미디어, ▼c2005
(㉡) ▼a비디오디스크 1매(60분) : ▼bNTSC, 천연색, 디지털, 스테레오 ; ▼c12 cm
500 ▼a본 표제는 표제화면의 표제임
(㉢) ▼a시스템조건: Window 98/2000/ME/XP; 500MHSz 이상 CPU; 16배속 이상 DVD-ROM드라이브
653 ▼aKBS스페셜▼a한국교육▼a한국교육문제▼a교육▼a교육정책
710 ▼aKBS미디어

① ㉠: c, ㉡: 300, ㉢: 538
② ㉠: c, ㉡: 338, ㉢: 516
③ ㉠: h, ㉡: 300, ㉢: 538
④ ㉠: h, ㉡: 338, ㉢: 51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비디오 녹화자료]'는 자료유형표시이므로 245 필드의 **▼h**에 기록한다. 수량·재생시간·물리적 특성·크기를 기술한 부분은 **300 형태사항**,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사양을 기술한 부분은 **538 시스템 사항에 관한 주기**에 해당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h: 245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록하는 필드이며, 그 안의 **▼h는 자료유형표시**이다. '[비디오 녹화자료]'는 표제나 책임표시가 아니라 해당 자료의 유형을 나타내므로 ▼h에 기록한다. 각괄호로 묶인 자료유형표시라는 점이 단서이다.

㉡ 300: 300은 자료의 수량, 물리적 특성, 크기 등을 기술하는 **형태사항** 필드이다. 보기의 ▼a에는 '비디오디스크 1매(60분)'라는 특정자료종별·수량·재생시간이, ▼b에는 'NTSC, 천연색, 디지털, 스테레오'라는 기타 물리적 특성이, ▼c에는 '12 cm'라는 크기가 기록되어 있다. 338은 수록매체유형을 나타내는 필드이므로, 이처럼 수량과 여러 형태적 세부사항을 함께 기술한 부분에는 300을 사용한다.

㉢ 538: 538은 **시스템 사항에 관한 주기**를 기록하는 필드이다. 보기에는 자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운영체제, CPU 사양, DVD-ROM 드라이브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538에 해당한다. 516은 컴퓨터프로그램·수치정보 등 컴퓨터파일과 데이터의 유형을 설명하는 주기이므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조건과 구별한다.

따라서 빈칸의 조합은 ㉠ h, ㉡ 300, ㉢ 538이며,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문헌을 분류하기 위해 주제분석을 할 경우 참고로 하는 문헌의 정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교양도서나 문학작품, 학제적 성격이 강한 자료의 표제는 문헌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표제를 통해 정확한 주제를 알 수 있다.

② 표제가 자료의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용목차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저자가 인용하거나 참고한 문헌을 확인하고 용어해설이나 색인 등을 파악하면 주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주석이나 번역서의 경우 해설은 특히 원전의 주제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일반교양도서·문학작품·학제적 자료는 표제가 비유적이거나 여러 분야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 **표제만으로 정확한 주제를 확정하기 어렵다**. 목차·서문·본문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다루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제는 주제분석의 단서이지만, 일반교양도서나 문학작품에서는 비유적·상징적으로 붙을 수 있고 학제적 자료에서는 여러 분야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제를 통해 정확한 주제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은 **표제 외에 목차·서문·본문 등을 확인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내용목차는 각 장과 절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여 주므로 문헌의 **주제 범위와 구성**을 파악하게 한다. 표제가 명확해 보여도 목차를 대조해야 표제에서 예상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O: 인용·참고문헌은 저자가 논의를 전개하면서 바탕으로 삼은 연구와 관련 분야를 보여 준다. 용어해설과 색인은 문헌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과 그 개념이 등장하는 위치를 알려 주므로, 이들을 함께 살피면 **문헌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O: 주석이나 번역서에 실린 해설은 원전의 집필 배경, 주요 논점, 내용의 의미 등을 풀어 준다. 원전의 표현이나 배경지식이 낯설어 본문만으로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원전이 무엇을 다루는지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NoteBase

문 13. 도서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청구기호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이다.
ㄴ.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각 도서를 개별화할 목적으로 부가하는 요소이다.
ㄷ. 저자(서명)나 출판연도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수입순 기호법이 있다.
ㄹ.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총서 등의 경우 그 구분을 위해 표시하는 기호시스템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기호에 속한 도서를 개별화**하는 청구기호의 구성요소이다. 수입순 기호법의 기준은 저자나 출판연도가 아니라 **입수 순서**이며, 다권본의 각 권을 구분하는 것은 **권차기호**이다.

보기별 해설

ㄱ. O: 청구기호는 자료를 식별하고 서가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로,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에 덧붙여 개별 자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ㄴ. O: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나 형식을 나타내므로 여러 책에 같은 기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때 도서기호를 부가하여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각 도서를 구별**하고 배열한다.

ㄷ. X: 수입순 기호법은 자료가 **도서관에 입수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자명이나 서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자순 기호법이고,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연대순 기호법이므로 서로 구별해야 한다.

ㄹ. X: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총서 등의 각 권을 구분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은 **권차기호**이다. 예를 들어 같은 다권본의 제1권과 제2권을 구별하도록 권 번호를 덧붙이는 것으로, 동일 분류기호 안에서 도서를 개별화하는 도서기호와 역할이 다르다.

옳은 보기는 ㄱ, ㄴ이며, 이를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②이다.

NoteBase

문 14. 통일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명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기는 어렵다.

② 전거통제 작업을 통해 전거레코드로 작성된다.

③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서 통일표제 입력필드는 130 또는 240으로 지정되어 있다.

④ 다수의 저작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각 저작마다 독립된 표제가 있고, 동시에 이들 자료 전체에 부여된 포괄적 표제를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여러 저작 전체에 부여된 포괄적 표제'는 **종합표제**를 뜻한다. 통일표제는 같은 저작이 서로 다른 표제로 나타날 때 관련 자료의 목록을 한데 모으기 위해 선정하는 **일정한 표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KCR 제4판은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통일표목의 선정·형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KCR 제4판에 명시된 규칙만으로 통일표제를 선정하고 그 형식을 정하기는 어렵다.

② O: 통일표제는 동일 저작을 식별하고 그 저작의 여러 판이나 번역본을 연결하는 통제된 접근점이다. 전거통제 작업에서는 **채택한 통일표제와 이형 표제의 관계** 등을 전거레코드에 기록하여, 표제가 달라도 같은 저작을 일관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③ O: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 통일표제가 기본표목이면 **130 필드**에, 개인명·단체명·회의명 기본표목이 있는 저작의 통일표제는 **240 필드**에 기술한다. 두 필드는 한 서지레코드에서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만중을 개인명 기본표목으로 기술하고 자료에 나타난 표제를 '南征記'로 기록하더라도, 통일표제 '사씨남정기'는 240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④ X: 독립된 표제를 가진 여러 저작을 묶은 자료 전체에 붙인 포괄적 표제는 **종합표제**이다. 통일표제는 여러 저작 전체의 제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저작의 여러 판·번역본 등이 서로 다른 표제로 나타날 때 그 저작을 식별하고 관련 목록을 한데 모으기 위해 선정하는 표제이다. 즉 종합표제는 여러 저작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나타내고, 통일표제는 동일 저작의 서로 다른 표제를 연결한다.

NoteBase

문 15. 폭소노미(folksonom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인들이 웹 사이트나 사진, 웹 링크 등 디지털 정보에 자유롭게 주제 태그를 부여한다.

② 주제를 부여하거나 태깅할 때 협업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③ 지식 및 자원의 발견에 유용하다.

④ 태깅의 특징으로 높은 정확성과 집중성을 들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높은 정확성과 집중성'은 자유로운 태깅의 일반적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용어를 자유롭게 선택하므로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같은 개념이 여러 말로 분산**되어 검색의 정확성과 관련 자료를 한데 모으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폭소노미는 일반 이용자가 웹 사이트·사진·웹 링크 등 디지털 정보에 **자신이 선택한 말로 태그를 부여**하면서 형성되는 분류 방식이다. 전문가가 미리 정한 용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방식과 달리 이용자의 표현과 관점을 반영한다.

② O: 여러 이용자가 같은 자원에 태그를 붙이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 **협업적 태깅**이 이루어진다. 각자의 주제 표현이 모여 자원을 조직하는 데 활용되므로, 주제 부여가 협업으로 수행되기도 한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③ O: 이용자는 태그를 통해 같은 태그가 붙은 다른 자원이나 연관된 태그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지식과 자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자원의 발견**에 유용하다.

④ X: 폭소노미의 특징은 자유로운 참여와 다양한 표현의 반영이며, **높은 정확성과 집중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를 통제하지 않으면 같은 태그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 불필요한 자료가 함께 검색될 수 있고,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여러 태그 때문에 관련 자료가 흩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의 자료에 '컴퓨터'와 'computer'라는 태그가 따로 붙으면 한 태그만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정확성과 집중성'은 '용어의 모호성과 표현의 분산으로 정확성과 집중성에 한계가 생길 수 있음'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를 적용하여 작성한 서지레코드의 일부이다.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mods xmlns version="3.5">
<titleInfo><title>깊고 푸른 밤</title>
<subTitle>1994년도 제1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subTitle>
</titleInfo>
<㉠ type="personal"><namePart>최인호</namePart></㉠>
<㉡ >텍스트</㉡ >
<㉢>
<place><placeTerm type="text">서울</placeTerm></place>
<publisher>문학사상사</publisher><dateIssued>2009----</dateIssued></㉢>
<language><languageTerm type="code" objectPart="text">kor</languageTerm></language>
<physicalDescription><extent>361p.; 22cm</extent>
</physicalDescription>
<㉣>깊고 푸른 밤; 포플라나무; 침묵은 금이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집/崔仁浩. –未忘/金源一. 時間의 門/李淸俊. –술래 눈뜨다/ 全商國.</㉣>

① ㉠ - creator
② ㉡ - Type
③ ㉢ - originInfo
④ ㉣ - Contributor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 안의 place·publisher·dateIssued는 각각 발행지·발행처·발행일을 나타낸다. 이처럼 **발행 정보를 묶는 MODS 요소는 originInfo**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에는 **name**이 들어간다. name은 자료와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이름 정보를 담는 요소이다. 여기서는 type 속성의 personal이 개인명임을 나타내고, 하위 요소 namePart에 '최인호'가 기록되어 있다. creator는 창작자라는 역할을 나타내는 말로, 필요한 경우 name 아래 role의 하위 요소인 roleTerm에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들어갈 요소명은 아니다.

② X: ㉡에는 **typeOfResource**가 들어간다. 이 요소는 텍스트·지도·정지영상 등 자료 내용의 일반적인 유형을 나타낸다. 보기에 기록된 '텍스트'는 이러한 자원 유형에 해당하며, MODS 3.5의 해당 열거값은 text이다. 선지의 Type은 이 기능을 하는 MODS 요소명이 아니다.

③ O: ㉢에는 **originInfo**가 들어간다. originInfo는 자료의 발행·생성 등에 관한 정보를 묶는 요소이다. 보기에서는 place 아래 placeTerm에 발행지 '서울', publisher에 발행처 '문학사상사', dateIssued에 발행일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감싸는 요소로 적합하다.

④ X: ㉣에는 **tableOfContents**가 들어간다. '깊고 푸른 밤', '포플라나무' 등의 수록 작품명과 각 저자를 이어 적은 부분은 작품집의 내용목차에 해당한다. 저자명이 함께 나와도 이 부분 전체가 기여자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Contributor가 아니라 내용목차를 기록하는 tableOfContents로 대응시켜야 한다.

NoteBase

문 17. 듀이십진분류법에서 복수의 주제를 다룬 문헌에 적용하는 분류규정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한 주제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영향을 준 주제에 분류함
ㄴ. 두 개의 주제를 별개로 다루는 경우, 분류표 상에 먼저 위치한 분류기호에 분류함
ㄷ. 상위 학문에서 파생된 3개 이상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룬 경우, 분류표 상에 가장 나중에 위치한 분류기호에 분류함
ㄹ. 주제에 대한 두 개의 가능한 분류기호 중 같은 계층에 0이 없거나 0이 더 적은 분류기호에 분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두 주제를 동등하게 별개로 다루면 **분류표에서 앞서는 주제**에 분류한다. 같은 계층에서 분류기호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0이 없거나 0이 더 적은 기호**를 우선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적용의 규칙에 따르면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영향을 주는 문헌은 **영향을 받은 주제**에 분류한다. A가 B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면 A가 아니라 B에 분류하므로, '영향을 준 주제'를 '영향을 받은 주제'로 고쳐야 한다.

ㄴ. O: 두 주제를 서로의 설명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동등하게 다루는 경우에는 분류표에서 먼저 나오는 주제에 분류하는 선행주제 우선규칙을 적용한다. 여기서 '먼저'는 문헌에 등장하는 순서가 아니라 **분류표상의 순서**이다. 어느 한 주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루거나 별도의 분류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ㄷ. X: 한 상위 주제의 하위 주제 세 개 이상을 동등하게 다루면 세 주제의 규칙을 적용하여 **그 주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분류기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가장 나중에 위치한 하위 주제의 기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ㄹ. O: 0의 규칙은 같은 계층에서 가능한 분류기호 중 0으로 시작하는 세목보다 1~9로 시작하는 세목을 우선하고, 00으로 시작하는 세목보다 0으로 시작하는 세목을 우선하는 규칙이다. 이는 **기호 전체의 0 개수가 아니라 같은 계층의 대응 위치**를 비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보기>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소설을 예로 기술하였다. FRBR의 제1집단의 구현형(manifestation)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

ㄴ. DVD로 제작

ㄷ. 한글번역본을 한실미디어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ㄹ. 35mm필름으로 제작되어 극장에서 상영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프랑스어·독일어로 번역한 내용은 언어가 달라진 **표현형**이다. 구현형은 표현형을 **특정 매체에 담아 제작·출판한 형태**이므로, 번역 자체와 구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FRBR에서 표현형은 저작의 내용을 특정 언어나 기호 등으로 실현한 것이고, 구현형은 그 표현형을 물리적 매체에 담아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로 표현했는지와 어떤 매체·출판 형태로 제작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ㄱ. 표현형: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하면 같은 소설의 내용을 서로 다른 언어로 실현한 표현형이 생긴다. 여기서는 **언어의 변화**만 제시했으므로 구현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구현형: DVD는 내용을 담는 물리적 매체이다. 'DVD로 제작'은 표현된 내용을 **특정 매체에 수록**한 형태를 가리키므로 구현형에 해당한다.

ㄷ. 구현형: 한글로 번역한 내용 자체는 표현형이지만, 이를 한실미디어 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은 그 표현형을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구현형이다.

ㄹ. 구현형: '35mm필름으로 제작'은 영상 내용을 **특정 규격의 필름 매체**에 담은 형태를 가리킨다. 구현형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극장 상영이라는 이용 방식보다 35mm필름이라는 구체적인 매체에 있다.

구현형에 해당하는 보기는 ㄴ·ㄷ·ㄹ이며,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의 설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쇄 또는 필사된 도서, 계속자료, 전자자료, 지도자료,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고서, 복합자료의 서지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② 서지데이터에는 공통으로 자료의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제, 주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③ 전자자료(ER)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치데이터, 컴퓨터 의존형 멀티미디어, 평면영사자료, 온라인시스템 또는 온라인서비스 등 부호화된 전자 정보원이 해당된다.

④ 서지레코드는 리더/06(레코드 유형)의 구분부호에 의해 여러 종류의 레코드로 나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평면영사자료'는 **시청각자료(VM)**에 속한다. 전자자료(ER)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치데이터, 컴퓨터 의존형 멀티미디어, 온라인시스템·온라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합서지용 KORMARC는 도서, 계속자료, 전자자료, 지도자료,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고서, 복합자료 등 **여러 자료 유형의 서지정보를 하나의 형식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특정 자료 유형에만 한정된 형식이 아니다.

② O: 자료의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제, 주기는 자료를 식별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서지정보이다. 책임표시는 저자 등 **자료의 내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다.

③ X: 전자자료(ER)의 범위에 **평면영사자료를 포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전자자료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치데이터, 컴퓨터 의존형 멀티미디어, 온라인시스템·온라인서비스 등 부호화된 전자 정보원이 해당된다. 평면영사자료는 시청각자료(VM)에 속하며, 영화필름·슬라이드·OHP 자료 등이 그 예이다.

④ O: 서지레코드는 **리더/06의 레코드 유형 부호**로 구분된다. 이 자리의 부호는 자료의 유형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문자자료·전자자료·평면영사자료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다.

NoteBase

문 20. 우리나라의 출판시도서목록(CIP)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ISBN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출판물은 CIP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석·박사학위논문과 점자출판물은 CIP 부여 제외 대상이다.

③ CIP 정보는 KORMARC 통합서지용 025 필드에 기술한다.

④ 동일 서명으로 2책 이상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은 1개의 CIP를 신청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석·박사학위논문과 점자출판물은 **CIP 부여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국내에서 간행되는 단행본이라도 모두 CIP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ISBN은 CIP 신청의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므로, **ISBN을 아직 부여받지 않은 출판물도 CIP를 신청할 수 있다**. ISBN 부여 여부만으로 CIP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② O: CIP는 출판 전에 도서의 서지정보를 표준목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단행본을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석·박사학위논문과 점자출판물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X: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한 CIP 레코드의 제어번호는 KORMARC 통합서지용 **023 필드**에 기술한다. 다른 도서관이 배포된 CIP 레코드를 이용할 때에는 001 필드의 CIP 제어번호를 023 필드로 옮기고, 001 필드에는 자관의 제어번호를 기록한다.

④ X: 동일 서명으로 여러 책에 나누어 간행되는 다권본은 **각 권별로 CIP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권수만큼 각각 하지만, 신청 후 CIP 데이터는 목록규칙에 따라 하나로 묶어 작성하거나 각 권별로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 단위와 최종 데이터의 작성 단위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